

2004년 제2차 공공기관 우수DB 시상

공공기관 DB 품질관리 모범사례 발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04년 제2차 공공기관 우수 데이터베이스(DB) 시상식이 지난해 11월 29일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 강당에서 개최됐다.

건설·교통분야, 경제·산업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3개 분야의 우수DB 각각 2종을 제1차 우수DB로 선정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DB를 대상으로 과학·정보통신, 교육·학술, 복지·환경, 농림·수산 등 4개 분야에서 각 2종의 제2차 우수DB를 선정했다.

과학·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상청의 '기상정보시스템' 과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의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가 선정됐고, 교육·학술분야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 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정보센터' 가 선정됐다. 복지·환경분야에서는 여성부의 '위민넷' 과 환경관리공단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가 선정됐고, 농림·수산분야에서는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아피스넷' 이 선정됐다.

글_신성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 2004년 제2차 공공기관 우수DB 시상식이 지난 2004년 11월 29일 한국관광공사 지하강당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경희 여성부 사무관, 이충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부장, 안종찬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실장, 김규일 기상청 담당관,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 손양래 환경관리공단 센터장, 한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실장, 정경아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원, 배상원 농산물유통공사 부장.

과학·정보통신분야

기상정보시스템 <http://www.kma.go.kr>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시스템(COMIS)’은 자연재해 예방 및 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상정보의 제공과 기후자료의 지원을 위해 2000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연간 2,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의 각종 기상장비와 해외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국내기상관측자료, 세계기상통신망(GTS)을 통한 수집되는 국외기상관측자료, 슈퍼컴퓨터에 의해 분석·처리된 수치예보모델자료, 주기별 각종예보 및 기상 특·경보 자료를 전국의 기상관서에 초고속기상통신망을 연결해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연구관은 “기상정보의 활용영역 확대 및 생활화로 기상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기상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상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신기술의 도입,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력의 축적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품질 기상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rview

이정환 기상청 기상연구관

▶ 원천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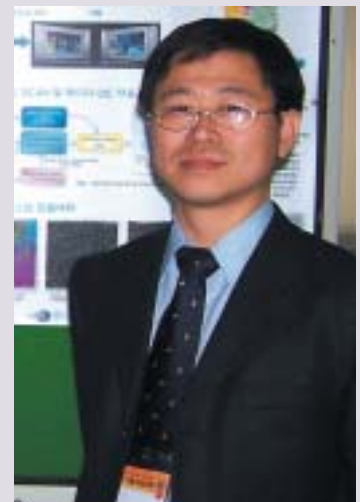
기상정보의 실시간 서비스를 입력돼, 센서가 탑재된 기상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각 시스템(위성, 레이더, 부이)에서 데이터 생성과 동시에 온라인 실시간 수집이 이루어진다. 국내기상관측자료와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한 수집, 관측자료 및 예보·특보 등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입력자료, 외부의 기상관측기관으로부터 온라인실시간으로 수집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제공의 애로사항은?

기상정보시스템은 2,600만개에 이르는 파일과 6억건이 저장된 RDBMS, 16억건의 AWS매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분석해 전국의 기상관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실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DB의 속도 향상이나 데이터의 무결성 등이 필요하나 전문인력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떤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는가?

초고속기상통신망을 구축해 서비스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기상관서에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방대한 양의 기상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자료관리의 일원화가 용이하도록 했다. 기상정보의 특성인 분산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http://www.itxor.kr>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의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IT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구축돼 서비스하고 있다.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는 기존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급변하는 IT분야의 시장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통계 및 각종 통계정보, 글로벌 산업동향, 국가별 마케팅정보, 바이어·입찰정보 등 IT수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국내외에서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생성하고 있다. 또한 실무에

맞는 맞춤형정보의 제공을 위해 수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함으로써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종찬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실장은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정보제공을 탈피하고, 실제적·실효적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 상호간의 지식정보 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nterview

안종찬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실장

▶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내용은?

국내의 중소기업이 마케팅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어·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대폭 강화했다. 해외시장개척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 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로컬 IT플레이어DB 및 관련동향정보, 유통바이어, 중개업체, 에이전트정보 등 심층적이고 유효한 바이어정보를 구축했다. 현재 65개국 18개 품목에 걸쳐 5만건 이상의 콘텐츠와 1만건의 해외바이어DB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 주이용자와 기대효과는?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는 중소기업과 IT관련 종사자, 외국 IT바이어들이 주이용자이다. 이전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의 고급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구입 및 시장조사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했다. 훌륭한 제품 및 기술력을 보유한 IT관련 기업들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고품질 정보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의 향후 계획은?

특히, 법률, 세제 등 전문적이며 양질의 시장정보 제공으로 확대해 구축할 것이다. 특히 수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입찰지원시스템과 바이어·오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출 매력도지표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의 해외시장정보 탐색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수출업무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수출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 IT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



과학·학습분야

에듀넷 <http://www.ednet.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은 1996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해 교수학습 자료 및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하는 약 36만건의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교사·학생을 포함해 하루 12만명이 이용하고 5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종합정보서비스이다.

에듀넷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 유관기관들이 보유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통해 국가 교육정보를 통합 서비스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또한 콘텐츠 복제나 원격 검색 의의가 아니라 현재 국가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데이터(KEM2.0) 공유를 통한 통합 검색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학교급, 학년, 단원별 분류체계를 통한 DB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및 학생들의 실제 수업과 관련된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도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에듀넷만의 장점이다.

한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실장은 '에듀넷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모든 교육수요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종합정보서비스로, 언제·어디서나 양질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듀넷은 교육환경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대한 지속적 연구·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한다.

interview

한태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실장

▶ 원천정보의 수집방법은?

원천정보의 수집은 크게 개발과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본원 또는 교육부에 의해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민간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과 맞물려 민간 콘텐츠의 저작권을 확보해 제공한다. 기타 원천정보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통해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해 정보를 수집·서비스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어떤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교육정보를 통합 서비스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효과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통한 정보 표준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해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정보 제공기관에서 1차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구성해 에듀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의 품질관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에듀넷은 한 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정부기관 등 교육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듀넷 DB의 정보 원천이 되는 각 기관들과의 협력 문제,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문제 그리고 공유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해외 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방송자료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 교육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교육정책정보센터 <http://www.edpolicy.net>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는 교육관련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산재돼 있는 교육정책 관련정보에 대한 통합검색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관련 연구 및 정책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교육정책 쟁점의 논의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주장, 외국사례, 전망 등을 담은 '교육현안', 연계기관 및 학회 등의 정책연구 보고서 요약과 원본을 제공하는 '정책연구' 및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책 관련 주요 국내 기사를 제공하는 '국내동향', 외국의 주요 교육동향을 소개하는 '국외동향', 교육관련 사설, 칼럼 등을 요약해 제공하는 '교육논단', 주요 교육 관련 법령과 통계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법령검색', '통계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엄선된 정책 정보와 관련자료는 주제별, 기관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은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관련 소식과 동향을 분류·가공하는 등 고품질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교육정책 관련 자료와 보고서 등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교육관련 연구자와 관련분야의 기획업무자들에게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판단, 연구,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interview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실장

▶ 교육정책정보센터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정책'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교육정책 공유시스템은 없었다.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는 연구보고서나 각종 자료들의 요약정보를 포함해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는 고품질의 교육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교육정책관련 정보를 구축·서비스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 대학 및 학회, 일간지와 교육전문지 등에서 제공되는 세미나, 연구보고서, 각종 뉴스 등의 자료를 참조해 정보를 가공·분류한 후에 제공하고 있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정책과 관련된 소식이나 새로운 동향만을 선별·가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D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떤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는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오프라인 메일진(Mailzine)인 '교육정책포럼'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관련 연구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 연구분야의 최신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환경분야

위민넷 <http://www.women-net.net>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위민넷'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돼 그 동안에 유익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10만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여성 공익포털사이트로 자리잡게 됐다.

위민넷에서 선배 여성(멘토)과 후배 여성(멘티)이 온라인상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매칭시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버멘토링'은 7,000쌍이 연결된 정보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들이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돼 다양한 관심분야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다. 또한 위민넷은 가장 중요한 모토인 '여성의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사이버멘토링을 비롯해 여성의 취업 및 창업정보, 직장여성의 모델을 제시하는 파워우먼 인터뷰 기사와 여성 리더십을 위한 온라인 강좌와 토익과 영어회화 강좌, 전문가의 직업상담 코너를 제공하고 자녀교육, 가

정생활, 여성의학, 가정법률분야, 자녀교육분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위민넷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더불어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부,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돼 취재에서 기사 작성까지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위민넷 기자회원 클럽과 한국 여성들이 참여하는 해외 기자회원 통신 코너에서는 지구촌의 생활, 교육, 경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다양하고 폭넓은 여성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조성은 여성부 공보관은 '위민넷은 여성을 위한 공익사이트로서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정책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interview

조성은 여성부 공보관

▶ 위민넷의 주이용자와 기대효과는?

위민넷의 주이용자는 20~30대 여성들로, 여성의 자기계발과 온라인을 통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정보와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민넷이 지향하는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다. 여성과 여성부에 대해 남성이 갖고 있는 편견을 바로 잡는 것도 위민넷이 가진 중요한 사명이다.

▶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서비스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보강하고 상담, 사이버멘토링 등 전략 콘텐츠를 강화하며, 여성의 요구와 취향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검색엔진을 도입해 지식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정보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위민지식창고'를 구축해 보다 집약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것이다.

▶ 향후 운영계획은?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관련 정보채널을 강화해 여성정책 및 여성계의 동향을 단번의 클릭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ONE-STOP 포털사이트'로 구축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환경산업·기술정보DB www.konetic.or.kr



환경관리공단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서 2000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환경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최신 환경산업·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포털 서비스이다.

환경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환경관련 전문기술정보부터 일반정보까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 수요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내용도 초기에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만을 제공했으나 지금은 환경시설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는 사이버컨설팅, 환경산업체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사이버환경전시관, 중소기업의 홍보를 지원하는 무료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포털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14개 분야 36만건의 정보를 서비스 있다.

손양래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센터장은 "2002년 7월에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에서는 KONETIC의 지식정보자원을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식정보자원으로 선정됐으며, 정보수요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환경산업기술분야의 대표 사이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환경산업기술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말했다.

interview

손양래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센터장



▶ 산업체의 기대효과?

환경산업 해외진출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관련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89개로 주로 중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27개국에 4천 79억원을 수출했고, 이중 중국수출이 2,549억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환경산업체의 거대 중국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환경산업 및 시장정보 조회망을 구축해 국내 환경기술 및 제품을 중국에 소개하는 중문 데이터베이스를 2005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매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중국환경시장동향 보고서는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환경산업체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원천정보 수집방법은?

국내정보는 우선 환경관리공단이 생성하는 전자자료를 DB로 구축하고, 환경전문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국내환경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환경신기술, 환경시장조사, 동향분석 등 최신 해외환경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9개국 15명으로 구성된 해외 정보제공자(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을 이용해 해외 최신 환경산업 및 기술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관련 정보는 주중대사관, 한중환경산업센터, 중국주재 IP, 중국환경보호총국 정보센터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국 내 최신 환경동향·경제동향 등 현지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제공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활성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어떠한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گا?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신규데이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전문가 워크샵 및 홍보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고품질화를 위해 3단계 DB품질등급제를 실시해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데이터베이스별 분포도를 작성해 분야별 정보편중 현상을 보완하고 있다.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 교육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농림·수산분야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http://www.kamis.co.kr>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수집하는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분석·가공해 서비스하고 있다. 유통정보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분산을 통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이해와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매매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는 과거 5개년간의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부류별 가격지수를 설정하고 당일의 가격변화를 지수화해 부류별 가격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통계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42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주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경로를 따라 출하단계, 도매단계, 최종 소비단계 등 각 단계별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된 주산지정보, 산지 및 소비지 거래동향, 유통경로, 유통비용 등의 농산물유통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및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별, 품목별, 시설별 현황정보와 취급품목, 시설면적, 생산량, 가동시기 등의 세부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소비지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나 대량수요처에서 산지의 유통시설과 직접 접촉해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배상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장은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제공되는 유통정보는 특정한 수요자층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 농업인, 유통인, 납품업자, 일반소비자 등 폭넓은 정보수요자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유통정보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interview

배상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장



▶ 원천정보의 수집방법은 무엇인가?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격정보를 정확하게 조사·수집하기 위해 5개 지사 17명의 직원이 매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한다. 조사된 정보는 PDA를 통해 자동으로 평균가격과 반입량을 계산해 유통공사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정보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30품목 42종류에 이르는 주요 농산물의 유통실태 및 비용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본사직원이 상시 현장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 가구의 농산물 구입 및 소비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특징이라면?

농산물유통정보는 과거 5개년간의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부류별가격지수를 설정하고 당일의 가격변화를 지수화해 부류별 가격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연간 최대, 최소가격, 표준편차, 진폭계수, 변동계수 등을 보여주며, 반입량과 가격변화 그래프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3개년 가격추세정보를 통해 특정 품목의 장기동향을 파악하고 전망도 내다볼 수 있는 등 단순한 가격조회 수준을 넘어 통계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은?

가격조사지역 및 품목을 확대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 한다. 대형유통업체 소비자가격 조사지역 및 대상을 2004년 5개 도시 15개소에서 2005년 8개 도시 20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조사해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비교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의 구축 범위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의 이용현황은?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2003년 4월에 첫 서비스를 개시해 초기에 하루 평균 검색횟수가 2,000건 수준에서 2004년 10월에는 하루평균 1만1,458건까지 증가하는 등 정보수요자 관심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대량수요처 및 일반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국내 농산물 유통관련 정보의 대표사이트라 할 수 있다.

농업전문포털 아피스넷 <http://www.affisnet>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아피스넷'은 농업정보화사업을 통한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약 3만2,000여건의 농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농업정보 포털서비스이다.

1991년 이후로 농림부와 함께 농업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10여년의 기간동안 수행해 온 사업의 성과를 통해 농업·농촌정보화 분야에 있어 현재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농산물재배, 유통에 관한 품목별 정보와 더불어 농업인 사례정보, 친환경농업, 벤처농업, 농업뉴스 등 이슈가 되는 시사에 대한 폭넓고 전문적인 정보와 농업뉴스, 생산기술, 병해충정보, 농업기상정보, 수확후관리기술, 조사가격, 경락가격, 수출입통계정보, 일반농업통계, 전문가분석정보 등으로 농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오제훈 팀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IT환경에 맞서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정보를 확충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전문화·체계화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interview

오제훈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팀장

▶ 아피스넷의 특징이라면?

아피스넷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농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위한 농업농촌 이미지, 상품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구축돼 있다. 그리고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이트로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SMS, 무선인터넷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고품질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농수산물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농수산물표준코드'를 운영해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표준화와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농업정보는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해당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일관된 데이터형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 서비스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농업정보를 통합해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업정보 수집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간 협조체계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및 제반 환경이 구축된다면 농업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분산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